



전북농협은 15일 전북본부에서 지역농·축협 상임이사, 전무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농·축협의 지속성장을 위해 건전여신 추진과 불법대출 근절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발전하는 책임 있는 상호금융 구현을 위한 건전여신 추진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 불법대출 뿌리 뽑는다

## 전북농협, '건전여신 추진 결의대회' 개최

전북농협(본부장 정재호)은 15일 전북본부에서 지역농·축협 상임이사, 전무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농·축협의 지속성장을 위해 건전여신 추진과 불법대출 근절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발전하는 책임 있는 상호금융 구현을 위한 건전여신 추진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결의대회는 최근 불거진 부실대출 관련 조직의 자정능력을 제고하고 임직원의 엄격한 도덕성을 재무장고하고자 개최됐으며 임직원 대표의 결의문 낭독과 구호 제창으로 진행됐다. 결의문 주요내용은 ▲임직원 윤리·

행동강령 준수 ▲상환능력 중심의 건전여신 추진 ▲제규정 준수와 공정한 직무 수행을 통한 불법대출 근절이 주요 골자다. 선서 후에는 중앙본부 정동협 여신제도팀장으로부터 여신추진 시 임직원 주의사항 및 건전여신 추진 우수사례, 사고예방 대책 등에 대해 자세한 교육이 진행됐다.

이날 전북농협 정재호 본부장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어졌던 불법대출을 뿌리 뽑고 근래에 불거진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임직원들의 윤리 확립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이번 결의대회를 마련했다"며 "앞으로 임직원 윤리강령

과 행동강령을 엄격히 준수해 정직하고 공정한 자세로 업무를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시대변화에 따라 기업에 요구되는 도덕적 기준이 더욱 엄격해지고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고 있다"며 "고객에게 농협이 신뢰받기 위해서는 일 반기업보다 더욱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더 많은 관심과 세심한 배려를 통해서 윤리경영을 꾸준히 실천해 나가 전북농협이 코로나19발 금융위기를 극복하고 견실한 손익구조를 갖추 최상의 지역대표 금융기관으로서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강조했다. /김윤상 기자

# 새만금에서 탄소중립 실현 | 농진청, 간척지 영농기술 설명회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간척지 농업연구회와 함께 15일 김제 새만금 광활시험지에서 '2021 간척지 영농기술 설명회'를 열었다.

이번 설명회에는 전북도농업기술원 관계자와 간척지영농협의체, 새만금영농단체 회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척농지에 적용할 수 있는 최신 영농기술을 농업인들에게 소개하고 현장의 어려움을 파악해 해결책을 모색하는 등 상호 소통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양 분야에서는 국가관리 간척지 토양의 이화학적 특성과 문제점을 제시했고, 작물 분야에서는 간척지적용 작물·원예·조식료 작물의 품종, 파종량, 시비량 설정, 염해 경감기술을 소개했다. 또한 농촌진흥청이 추진 중인 새만금 광활시험지 연구 재배지 확대 및 연구동선 신설 계획도 소개됐다.



농촌진흥청은 간척지농업연구회와 함께 15일 김제 새만금 광활시험지에서 '2021 간척지 영농기술 설명회'를 열었다.

농촌진흥청 이병규 간척지농업연구팀장은 "간척지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신기술 개발을 위해 새로운 신규 사업을 준비 중"이라며 "신규 사업에는 대규모 디지털 재배실증을 통한 경제적 농업 기술 개발, 간척지를 탄소중립

실현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 수출형 시설원예단지 조성 지원을 위한 연구 등 간척지의 미래지향성에 초점을 맞춘 연구를 집중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윤상 기자

#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2차 지원대상 기업 도내 18곳 선정

## 전북 제조혁신협의회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윤종욱, 이하 전북중기청)과 전라북도(도지사 송하진)는 15일 '제2차 전북 제조혁신협의회'를 열고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2차 지원대상 기업으로 도내 18개사를 최종 선정했다.

이 사업은 신청서를 제출한 136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평가결과를 토대로 우수점수 순으로 18개사를 선정, 최종지원 대상으로 결정했다.

지난 6월 22일부터 7월 21일까지 진행된 올해 2차 모집에는 도내 136개사가 지원해 선정목표 대비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이는 스마트공장 도입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지역의 제조 중소기업계를 중심으로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에 선정된 기업은 스마트화 단계별 목표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을 받게 되는데, 총 사업비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기초단계 최대 7천만 원, 고도화 1단계는 최대 2억 원까지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전북도는 국가사업으로 추진 중인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에 참여하는 업체에 도비를 추가지원(국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전북도는 15일 제2차 전북 제조혁신협의회를 연 가운데 참석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비지원 한도 내 총사업비의 15%)에 도내 기업의 제조혁신역량을 강화하는데 힘을 쏟고 있다.

전북중기청 윤종욱 청장은 "우리나라 경제의 근간인 제조업이 코로나19라는 위기 속에서 성장과 고용의 버팀목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내년 기업들의 제조현장에 스마트화라는 시대의 흐름을 접목시켜 중소기업 제조

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정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종선정 결과는 17일부터 사업진담기관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의 스마트공장사업관리시스템(www.smart-factory.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영태 기자

# 올 추석 차례상 비용 지난해와 유사 수준

평균 29만7804원으로 전년 치립비용과 비슷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 이하 aT)는 올해 추석 차례상 치립비용이 평균 29만7,804원으로 전년도 치립비용 29만3,365원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15일 발표했다.

업체별로는 전통시장 25만4,296원, 대형유통업체 34만1,312원으로 전통시장이 대형유통업체에 비해 약 8만7,000원 가량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에 비해 10일 정도 빠른 추석 명절을 일주일여 앞둔 지난 14일 전국 17개 전통시장과 27개 대형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추석 차례상 성수품 28개 품목에 대해 실시한 결과다.

전통시장은 전년 대비 4.1%p 상승했으나, 대형유통업체는 정부의 성수품 공급안정 대책에 따른 공급 확대와 할인행사 등에 힘입어 0.3%p 하락했다. 정부의 공급안정 대책이 시작된 지난달 30일과 비교하면 8개 관리 품목이 평균 1.6%p 하락해 점차 안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주요 성수품의 공급량을 평시 대비 1.5배, 전년 추석 대비 1.4배 확

대 공급하는 한편 추석 성수품 농축수산물 할인대전(9.1~22일)을 개최해 주요 농축수산물 22개 품목에 대해 20% 할인을 지원하는 등 정책효과 영향에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

품목별로는 지난해 작황이 부진했던 쌀, 참깨 등의 식량작물과 코로나19 확산으로 가정수요가 증가한 축산물에 가격이 다소 상승했으나, 햇과일 출하가 활발한 사과와 배, 특히 짧은 장마로 생산량이 증가한 배추와 무는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했다.

aT 김권형 수급관리처장은 "추석을 일주일 앞두고 성수품 물가는 안정세에 접어들었다"며 "국민 모두가 평안한 한가위를 맞을 수 있도록 정부가 협심해 추석 성수품 마지막까지 안정적인 수급관리와 물가안정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aT가 발표한 성수품 구입비용의 상세정보는 농산물유통정보 홈페이지(www.kamis.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직거래장터 등 오프라인 장터 정보는 바로정보 홈페이지(www.baroinfo.com)에서 확인 가능하다. /김윤상 기자



# 전기안전공, DL이엔씨와 안심건물 인증 확산 협약

한국전기안전공사와 DL이엔씨는 지난 13일 경기 하남 갑일예코엔 e연한 세상 현장에서 김권중 기술이사와 권수영 주택본부장 등 양사 관계자가 함께 가운데 '전기안전건물 인증 확산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을 통해 양사는 공동주택 전기사고 감축 모델 개발 한국전기설비규격(KEC) 및 전기안전관리자 시험에 부합하는 인증제도 공동기준 마련, 한국판 그린뉴딜 사업 지원, 공동주택 안전관리자 전기사고 예방 특별교육 등에 관한 협력을 추진한다.

전기안전건물 인증은 최근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전력사용량 증가와 변압기 과부하 등의 요인으로 정전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전기설비 안전 확보와 국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마련한 사업이다.

아울러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인증사업 확산을 위해 향후 전기설비 검사방법과 안심건물 인증제도 심사기준을 간소화하는 한편, 공동주택 검사 분야 일원화와 전기설비의 품질 향상을 이끌어 나갈 방침이다.

한국전기안전공사 김권중 기술이사는 "전기안전건물 인증사업을 통해 민간건설사들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며 효율성 높은 공동주택을 만들 수 있도록 힘써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태 기자



# 마을자치연금 확대 위한 향후 과제는?

## 국민연금, 포럼 열고 쟁점 논의 조례제정 등 제도화 마련 강조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용진)은 15일 전주 라한호텔에서 마을자치연금의 확대를 위한 주요 쟁점과 향후 과제라는 주제로 '2021년 마을자치연금 포럼'을 개최했다.

'마을자치연금'은 마을공동체 사업에서 창출되는 수익금과 공공기업·민간기업이 지원하는 수익금 등을 활용 마을 어르신들께 매월 연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이번 포럼은 노후소득 강화방안의 하나로 '마을자치연금'에 대한 학술적 논의와 공감대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마을자치연금 포럼'은 원도연(원광대 교수), 이종익(한국사회투자 대표), 오다아(숭실대 교수), 김도영(CSR 대표), 권문일(국민연금연구원), 김성호(경원대) 등 총 11명이 참석해 발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국민연금연구원 권문일 원장은 개회사에서 "BSG 경영의 일환으로 공단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마을자치연금이 지역공동체 강화와 노후 소득 확대 방안의 하나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발표자로 나선 원도연 교수는 공동



체 의의에 대한 새로운 평가가 필요하며, 기금조성과 조세제정 같은 제도화가 마련돼야 함을 강조했다. 아울러 이에 따른 국가적 인정과 구성원의 동의 과정은 필수적임을 언급했다.

이번 포럼은 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기본방역 수칙에 따라 무관중으로 진행됐으며, 해당 포럼 내용은 '국민연금공단 NPS' 공식 유튜브(Youtu) 채널로 실시간 생중계됐다.

한편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7월 마을자치연금 제1호 익산 성당포구마을 준공식을 진행했으며, 지난 8월부터는 70세 이상 어르신 28명에게 매월 10만 원씩의 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 김용진 이사장은 "마을자치연금은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 제도를 보완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며 "공단은 앞으로도 마을자치연금을 공단의 대표 브랜드로 적극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영태 기자

# 8월 전북지역 취업률

작년 대비 1.7%p ↑

취업자 96만9000명  
고용률도 전년보다 증가

호남지방통계청 전주사무소가 15일 발표한 8월 전라북도 고용동향에 따르면 전북지역 취업자는 96만9,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7%p인 2만6,000명 증가했고 고용률도 전년동월대비 1.3%p 증가한 66.4%로 집계됐다.

8월 현재 도내 15세 이상 인구는 155만6천 명으로 1,000명(0.1%), 경제활동인구는 98만5,000명으로 2만6,000명(2.8%) 전년동월대비 각각 증가했고 경제활동참가율은 63.3%로 전년동월대비 1.7%p 상승했다.

반면 비경제활동인구는 57만1,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만5천 명(-4.2%) 감소세를 보였다.

산업별로는 전년동월대비 도소매·숙박·음식점업은 3만8,000명(27.2%), 전기·운수·통신·금융업은 4,000명(4.7%),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은 1만5천 명(4.4%) 각각 증가했으나, 농업·림업은 2만1,000명(-10.8%), 건설업은 5,000명(-6.4%), 제조업은 5,000명(-3.8%) 각각 감소했다.

직업별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서비스·판매직은 2만4,000명(14.0%), 기능·기계조작 및 조립·단순노무종사자는 1만8,000명(5.7%), 사무종사자는 3,000명(2.7%), 각각 증가한 반면, 농림어업종사자는 1만6,000명(-8.7%), 관리자·전문가는 3,000명(-1.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비임금근로자는 1,000명(-0.1%) 감소한 33만3,000명으로 이중 자영업자는 6,000명(2.5%) 증가했으나, 무급가족종사자는 7,000명(-8.2%)으로 감소했다.

임금근로자는 27,7,000명(4.4%) 증가한 63만6,000명으로 이 중 상용근로자는 2만1,000명(5.0%), 임시근로자는 1만3천 명(9.0%) 각각 증가했으나, 일용근로자는 7,000명(-14.1%) 감소세를 보였다. /이영태 기자

# 전은 JB카드, '비대면 배달 앱 외식 할인' 동참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서한국)은 15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재개하는 '비대면 배달 앱 외식할인' 행사에 참여했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소비 위축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배달의 민족', '요기요', '쿠방이츠',

'배달의 명수' 등 국내 총 19개 배달 앱이 참여하며 15일부터 정부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된다.

참여 방법은 전북은행 홈페이지에서 응모 후 배달 앱을 통해 2만원 이상 4회 주문 시 1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영태 기자